

완도군 신학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선정

농림부 주관 평가, 체험·음식·숙박 모두 1등급 전국 310개소 중 23개 마을 '으뜸촌'으로 꼽혀

완도군 군외면 신학리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협회가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수산물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관광(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310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3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심사단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다.

평가 결과, 23개 마을만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신학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전국 최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대상지인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양마을에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르딕워킹과 해초 비누 만들기, 전복 양식,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귀농어귀촌인들이 '완도에서 살아보기'를 경험해 볼 수 있어 힐링의 장소이다.

'으뜸촌'으로 선정되면 현관이 수여되며, 다



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어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사무장 활동비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우철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공동체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완도만의 특별한 농어촌 체험으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체험마을 1,170여 곳 가운데 현재 44곳이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강진군은 지난 13일 강진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한 놀이문화 활동 지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놀이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놀이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놀이문화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결성된 동아리 4개팀이 각각의 특색있는 테마를 가지고 개발한 놀이프로그램을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시범 운영했다. 놀이문화 동아리 회원 10여 명과 5-7세 지역 어린이 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산 정약용선생과 함께하는 서당체험과 마당극놀이, 다양한 음악을 듣고 몸으로 표현하며 통합창의력을 키우는 음악놀이,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고 놀면서 신체적·정신적 행복감을 높이는 창의놀이,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며 놀 수 있도록 돕는 통합놀이, 환경그림책을 함께 읽고 페트병을 이용한 공동 작업으로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놀이 등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신선한 놀이 기회를 선사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골든타임 확보'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

김성 군수 "군민의 생명 지킬 수 있도록 대응 능력 높이겠다"



200명을 대상으로 읍면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청 자료(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 참고)에 따르면 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남자82.4명 / 여자47.2명)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으로 파악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2021년 기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5.3%) 보다 2배 이상 높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상수 주무관(7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익히게 됐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공직자들의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19일부터 21일까지 장흥군보건소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의뢰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공직자들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전문강사의 지도로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을 익히고 실천 대응능력을 키웠다.

장흥군보건소는 지난 11월에 이장단, 부녀회장, 청년회장,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안정적 행정 서비스·조직 활력 기대

진도군이 신규 공무원 12명의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임용은 행정, 방송통신, 환경, 토목 등 총 4개 직렬 12명이다.

특히 신규 공무원 중 9명은 진도군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신속히 충원된 토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진도군 토목 사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향후 민선 8기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현안 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임용을 통해 부서별 결원 보충과 함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어 능

동적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큰 용기를 발판으로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직 첫발을 내딛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민에게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신규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과 직무역량 배양을 위해 ▲멘토-멘티제 운영 ▲주요 사업지 견학 ▲전산체계 활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 ▲웃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공직자 숙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전국최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한다.

해남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삼산면 평활리 약 60ha 면적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도 들어선다.

또한 고구마 연구센터 건립,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 과학영농 실증시험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되어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는 체계적 단지 구성을 위한 시설 조성 구상안과 부문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기후변화대응센터 및 과수연구소와 연계성, 효율적 연구시설의 배치계획, 관계용수 확보 방안, 녹지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04억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3ha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신축한다. 20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기후변화 정책지원부, 기후데이터부, 홍보관 등이 들어선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